



가금질병연구회, 현안질병 대책 세미나 열어

✦ 정기총회서 송창선 교수 차기 회장 선출도

가금질병연구회(회장 권준헌)는 지난달 2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강당에서 '2010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닭 살모넬라 감염증,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계두 등 현안질병에 대한 연구내용이 대거 소개됐다. 1부에서는 세균성 질병을 주제로 해서 김기석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바이엘코리아 박경운 박사가 국내 살모넬라 감염사례를, 검역원 권용국 연구관이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 발생실태를 발표했다. 2부는 권준헌 가금질병연구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한국가금연구소 나만채 원장이 닭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을, 건국대 송창선 교수가 최근 발생한 계두(fowl pox)의 특징을 강연했다. 한편, 가금질병연구회는 이날 세미나가 끝난 뒤 정기총회를 열고, 건국대 송창선 교수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나머지 임원은 추후에 회장이 선임하기로 했다. 송창선 신임회장은 앞으로 2년간 가금질병연구회를 이끌어가게 된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0년 10월 2일



“동물복지는 소비자·개방시대 축산의 힘”

✦ 농식품부 주최 ‘농장동물 복지강화 워크숍’서 한목소리

“동물복지형 축산이야말로, 진정 소비자 선택을 이끌어내고, 수입 축산물 파고를 이겨낼 경쟁력이다.” 지난달 30일 충북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농식품부 주최의 ‘2010 농장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강연자들은 한결같이 “동물복지형 축산은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농식품부 안유영 사무관은 “소비자들은 돈을 좀더 지불하고서라도 안전축산물을 구입할 의향이 강하다. 동물복지형 축산물 시장전망은 매우 밝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FTA 등 개방화 물결 속에서 동물복지형 축산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동물복지형 축산을 통해 경쟁력있고, 지속가능한 축산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종현 동물보호과장은 “한-EU FTA 등을 감안할 때 동물복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과제이다”며 “농식품부와 검역원

은 정부가 공식인정해 주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와 ‘동물복지 축산식품 표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축산과학원 강희설 축산환경과장은 “한국형 동물복지 축산모델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축산여건을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의 국산화를 실현해 가격을 떨어뜨려야만, 복지형 축산이 저변으로 확대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전남대 조광호 교수는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동물복지형 축산 시 투자액보다 수익이 훨씬 더 많았다. 특히 질병발생을 억제하는 등 생산성 개선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 조건으로 HACCP 및 이력추적제 연계 등을 제시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0년 10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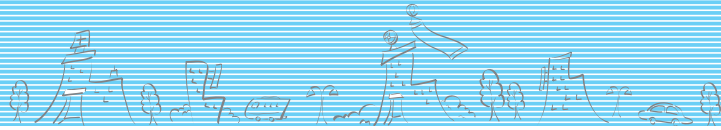
 **유가공 · 계한제품 위생관리 강화**

+ 검역원, 축산물 기준규격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조제분유 등 유(乳)가공품의 미생물 위생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예정)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안예고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유(乳)가공품의 미생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조제분유의 세균수 기준을 강화하고, 축산물 중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인 *에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에 대한 시험법을 신설했다. 그리고 현행 축산물 시험방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실험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감안해 일부 시험법을 개정·보안했다.

한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축산물가공품 분할 판매와 관련해 세부적으로 해당제품의 유통보존 온도를 규정했다. 아울러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원유 및 식용란의 검사기준을 기준규격고시로 이관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원료알의 식용부적합 알 범위를 확대하고 비살균액란의 원료알 구비조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계란제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했다. 그 외에도 유가공품 중 발효유류의 정의 및 성분규격을 일부 보완함으로써 다양한 발효유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WTO/SPS 통보, 관보게재 등 의견수렴과 법적절차를 거친 후 오는 12월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0년 10월 7일



이주호 검역원장

✦ “사전에방 중심 방역·검역 강화 중점 추진”

“사전에방 중심의 가축방역 및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검역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취임 후 2년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1년간의 임기 연장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수장을 다시 맡은 이주호 원장은 지난달 29일 출입 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이 원장은 향후 검역원의 주요 업무 추진과제를 밝히면서 특히 가축질병 대응능력 강화 및 악성가축질병의 조기 검사를 위한 조직 운용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 원장은 “구제역·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인 위기대응팀을 신설하고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2년까지 선진형 가축방역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2013년 MSY 20두 목표 달성을 위해 돼지소모성질환 등 축산농가에 지속적인 경제적 피해를 안겨다 주고 있는 만성 가축질병의 감소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2014년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을 위한 청정화 확인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종외래 가축질병 대처 능력 및 국제협력업무 강화를 위해 파종류, 양서류의 주요 질병 조사, 검역방법을 마련하는 등 국제사회 검역환경 및 새로운 검역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쇠고기 수입 및 국제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질병 지역화 적용’에 대비해 OIE에 전문가를 상시 파견해 국제기준 설정 단계부터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주호 원장은 2년간의 임기동안 성과로 지난 5월 BSE에 대해 OIE의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했으며 3년후 최고등급인 경미한 위험국 지위를 획득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브루셀라병과 뉴캐슬병에 대한 OIE 표준실험실 인증 획득 및 신종플루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한 확산 방지 등을 성과로 자평했다.

그러나 적극적인 방역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구제역 및 AI가 발생한 점과 축산물 수출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없는 점 등을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0년 10월 8일